

제공일자	2008. 8. 11(월)	담당자	진 익 금융제도실 실장
홍보담당	김진익 선임(368-4413)	연락처	02-368-4461 총 2 매

제 목 :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 방안

기관투자자 헤지펀드 투자 시, 보다 효과적인 자산가치 보전 가능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관련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내년 중 국내에서의 헤지펀드 설정을 허용할 방침인 것과 관련하여, 보험연구원(원장 나동민)은 보험회사 및 기관투자자의 바람직한 헤지펀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보고서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 방안**”을 발간하였다.

보험연구원 진 익 금융제도실장은 향후 헤지펀드가 활성화되면, 국내 자산운용 및 위험관리 기법이 선진화되는 한편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이 보다 제고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투자자들은 헤지펀드 전체를 막연하게 고위험-고수익 자산으로 간주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개별 헤지펀드의 운용전략과 위험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스스로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운용전략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헤지펀드를 기존 포트폴리오에 적절히 편입함으로써 투자를 보다 다변화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고 자산가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만큼, 보험회사와 같은 기관투자자가 헤지펀드 투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진 익 실장은 헤지펀드 투자에 수반되는 대형손실위험이 주식이나 채권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만큼, 투자 결정에 앞서 해당 헤지펀드의 조직, 운용전략, 과거실적, 위험요소, 법적사항 등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헤지펀드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전통적 투자자산을 상회하는 초과수익의 일정 부분은 대형손실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받는 위험프리미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시장상황에서 초과수익의 원천이던 운용전략이 시장 유동성 급감시점에서는 대규모 손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1998년 LTCM 사례나 2008년 Bear Sterns

사례를 제시하였다. 특히 보험회사와 같은 기관투자자에게는 시장 상승기에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하락기에 자산가치를 보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만큼, 대형손실위험을 감안하여 자산가치 보전에 적합한 헤지펀드 운용전략에 선별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진 실장은 성공적인 헤지펀드 투자를 위해서 보험회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선, 헤지펀드 운용자 선정 시 투자 초기에는 각 운용전략에 대한 보험사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운용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개별 헤지펀드 운용자 선정을 외부에 위탁하는 것이 불가피하겠으나, 궁극적으로는 기관투자자가 헤지펀드 운용자를 직접 선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축적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대형손실위험을 감안하지 않은 전통적인 위험조정수익률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헤지펀드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편입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포트폴리오 구성 시 대형손실위험을 감안하여 헤지펀드 투자 비중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관리에 있어서도 시장위험만을 감안하는 지표를 사용하면 헤지펀드 투자에 따른 위험수준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형손실위험까지 고려한 위험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헤지펀드 투자는 전형적인 위험지표로는 식별되지 않는 다양한 비체계적 위험을 수반하는 만큼, 그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지표의 관리와 더불어 정성적 위험관리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